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4. SPRING

국
후
장

2014 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화약통

조선 중·후반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약통이다. 화약이 물에 젖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남자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다. 뚜껑은 화약의 양을 조절하고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01 기념관 화보



20

34

04 재단포커스 1

2014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요 사업계획

08 재단포커스 2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미리보기

10 기획특집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실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 개관

12 녹두칼럼

갑오년 첫날의 기억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송찬섭

14 인터뷰1 동행공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청춘을 바치다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문병학

18 인터뷰2 빌글! 참여자유족

동학농민혁명에서 독립운동까지, 끊이지 않는 구국정신
- 참여자 김홍기의 증손 김동규

22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알기

-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24 만화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황해도 지역의 봉기와 전투

26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전라 서남부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
-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항섭

28 세계의 혁명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2
- 충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서정복

32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대상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찾아서 5

3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40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44 네트워크 소식

전봉준 장군 158주년 탄생 기념제 개최 외

48 녹두꽃 낱말파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4년 봄호(15호)

발행일 2014년 3월 31일

발행인 김대곤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장의 지킴이 십이지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광장의
중앙에서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간지 순으로 줄을 선
십이지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땨에 맞는 십이지상이나
갑오년을 상징하는 말의 상 앞에서
기념촬영 한번 어떠신가요?



2014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요 사업계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한해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설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때보다 뜻 깊고 의미 있는 한해를 보내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선양하는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념홍보사업

사업목적

-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활성화 및 확산
 - 동학농민혁명의 자주, 평등, 민주정신의 연구 및 전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와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전승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정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확인
-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운영
 - 전국적인 규모의 기념사업 운영을 통한 동학농민 혁명의 의미 전파
 - 12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의미 재조명

주요 사업내용

- ◆ 지역 기념행사 개최 지원
 - 전국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 정신선양 사업 지원
- ◆ 기념공원 추진위원회 운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 기념재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 녹두꽃 '웹진' 발간 (연 4회, 계간지)
- ◆ 기념재단 알리미 사업
 - 기념재단 각종 홍보물(브로슈어 등) 제작

연구조사사업

사업목적

-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정리
 - 국내외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조사·수집·정리를 통한 D/B화
 -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질적인 발전 기반 제공
 -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제공
- ◆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 전파
 -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심포지엄 개최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국역화를 통한 접근성 확대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료의 다양한 활용

주요 사업내용

- ◆ 자료조사·수집·정리
 -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한 동학농민혁명 연구 발전 기반 마련
- ◆ 국역총서 발간
 -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국역총서 발간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도서 발간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관련 자료의 정리
- ◆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 업데이트
 -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관련 연구진 및 일반인들의 자료 접근 기회 제공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운영지원

사업목적

-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 국내외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및 유물을 활용하여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동학농민혁명 저변 확대
 - 동학농민혁명 특별전 개최 및 관련 도서 발간

주요 사업내용

- ◆ 전시운영 및 관리
 -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전 개최
 - 동학농민혁명 소장자료 도록 발간
- ◆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전국 유적지 답사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 기회 제공
- ◆ 기념관 시설보수
 - 기념관 전시환경 개선을 통한 안락한 관람 환경 제공
- ◆ 동학농민혁명포럼 운영
 - 포럼 운영위원회 및 권역별 공동연수, 명사초청 강연회 등
- ◆ 자료번역 및 자료집 발간
- ◆ 동학농민혁명 문화재 등록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사업목적

- ◆ 전시·연구·교육·기념사업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전국 제1의 동학농민혁명관련 대표시설로 육성
 -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홍보물 활용을 통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획전시, 어린이전시실 등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정신 전파
- ◆ 기념관운영을 통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청사관리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를 통한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전시환경 개선

주요 사업내용

-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운영
 - 유물구입, 관련도서 구입 등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정리
 - 각종 행정업무를 통한 기념관운영
-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관리
 - 체계적인 시설·조경관리를 통해 다시 찾는 기념관으로 조성
-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 주제선정을 통한 기획전시(2회)로 동학농민혁명의 다양한 내용을 전파
- ◆ 어린이 동학농민혁명 전시실 운영
 - 체험형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생각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
 - 프로그램 교체를 통한 다양한 전시 진행 → 가족단위 관람객 유치를 통한 기념관 활성화
- ◆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홍보
 - 도록, 리플릿,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기념재단과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개최

사업목적

-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 국민적인 홍보 및 공감대 형성
- ◆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지속적 추진
- ◆ 12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일시 : 2014. 10. 10(금) ~ 10. 11(토)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천도교 중앙총부 전국동학농민혁명 유족회
- 주관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 행사내용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식
-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봄
- 문화공연(길놀이, 식전공연)
-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슬로건〉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슬로건은 지난 2013년 7. 10(수)~8. 31(토)까지 진행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로 결정되었다. 이는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구적 깨달음이 120년 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실천되었으며, 이러한 인간존엄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목적

- ◆ 동학농민혁명 참여 희생자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이 프랑스혁명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 조성
- ◆ 기념공원 조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연수기능의 연동으로 역사교육 강화

사업개요

- ◆ 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 일원 (황토현 전적지 내)
-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4년간)
-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6,992m²
- ◆ 사업범위 : 희생자 공동묘역, 위령탑, 추모공간, 역사 문화 체험관, 연수동 등
- ◆ 사업내용
 - 기념공원추진위원회 운영
 - 기념공원조성 설계공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미리보기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2주갑 즉, 1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런 기념비적인 해를 맞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추진목표로, 그 위상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하 내용은 추후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 ◆ 일 시 : 2014. 10. 11.(토), 10:00
-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 주 쇠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천도교 중앙총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 ◆ 행사내용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식(식전공연 포함), 유족의 밤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전국 동학농민혁명 지역기념사업단체(26개) 등

2.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 ◆ 일 시: 2014. 10. 28(화) 13:00 ~ 10. 29(수) 18:00
-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 ◆ 주 쇠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천도교 중앙총부
- ◆ 대주제 : 동학농민혁명, 평화·화해·상생의 시대를 열다
 - 제1주제 : 동학농민혁명 – 청일전쟁의 전개와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 제2주제 :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 제3주제 :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세계의 미래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 전시명: **특별기획전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 개관일 : 2014. 5월 중
- 장 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및 기념관 로비 등
- 방 법 : 주제에 따른 주요 유물 선정·대여 및 기념관 전시 이후, 이동이 용이한 이젤과 액자 등을 제작하여 전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순회전시 개최

전시내용

구 分	주 제	전 시 요 지	전 시 물
과 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전국 주요 기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수집유물로 살펴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고문서
현 재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기념행사·공연 자료, 작가의 작품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 소개	사진·그림 작품 영상물 외
미래	동학농민혁명군이 추구한 미래상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주제로 일반인, 학생 등이 참여한 포스터의 당선작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군이 그리던 미래상을 표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제고	포스터 공모 우수작

◆ 문화예술행사

- 식전공연 및 국민의례 : 국립국악원 협조 중
- 문화·예술 공연 :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등 지자체와 협의 중

지자체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공연 준비현황

공연 명	주 관	개최 장소 및 시기
무용극, '파랑새'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시군 순회공연(6월말)
칸타타(동학)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11월말)
창극, '불꽃'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5.31/6.1)
연극, '녹두의 꿈'	전주시립극단	전주덕진종합예술회관(5.31.)
동학창작 뮤지컬(학생)	화랑공연문화예술연구소	고창문화의전당(4.25.)
국악극, '환생'	정읍시립국악단	정읍문화예술회관(협의중)
창작탈극, '눈자라기2'	극단 꼭두광대	보은문화예술회관(연중)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실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 개관

기념관운영부 학예사 박아영

어린이를 위한 전시환경의 중요성

최근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관을 방문하는 가족, 학교 단위의 어린이 관람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역과 인물, 역사, 사건 등 무수히 많은 소재에 따라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는 여러 전시관 관람을 통해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유물을 직접 볼 수 있고, 더불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실 개관과 전시 소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난 2014년 1월 13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은 2014년의 첫 기념행사로 어린이전시실을 개관하였다. 기념관 상설전시실 중 한 부분의 전시물을 해체 후 어린이전시실로 재개편 하였으며, 면적은 약 50여 평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부 구역을 개편 한 것이지만, 어린이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2004년에 기념관이 개관된 이래 처음 이루어진 전시실 개편이기에 더욱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전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 증가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는 어린이 관람객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저학년 층을 대상으로 한 역사서와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까닭에 어린이에게도 ‘동학,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등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하거나 더욱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으나 한자가 병용된 패널과 성인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문은 어린이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기에 기념관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어린이전시실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기획하게 된 어린이전시실은 혁명의 전개과정을 시간 순으로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돋고, 후반부에서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전반을 소개하고자 도입부에서 중반부까지는 동학의 발생, 동학농민혁명의 원인과 1차 혁명, 그리고 관민상화를 이루었던 집강소 활동은 물론, 일본의 침입에 항일의지를 불태운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나라 현대사 속 민중운동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하기 위해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전시 관람 후에 어린이 홍보대사 기회 부여

어린이에게 전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명 패널과 한자 사용은 최대한 배제하여 구성하였으며, 놀이와 체험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전반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림과 모형, 퍼즐, 그래프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 전달 매체를

준비하였다. 이 가운데 어린이관람객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은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이다. 키오스크에는 관람 후 전시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O, X 퀴즈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일정 수량을 정답으로 맞히면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유적지, 유물 등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키오스크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개인의 블로그에 관람후기를 남긴 어린이를 선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어린이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한시적인 운영이 아닌 장기적인 운영계획으로 진행될 어린이 홍보대사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과 그에 따른 교육을 통해 향후 우리역사를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다. 상세한 사항은 기념관 방문 또는 문의전화(063-536-189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어린이전시실 향후 계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실 방문을 통해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도 우리역사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오랜 기간 다소 무겁고 어렵다는 편견으로 멀리하진 않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한 군사적 훈련도 받지 못한 농민들이 손에 죽창과 무기를 든 채 빗발치는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양고자 하였던 세상은 어떠한 곳이었는지,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평등한 세상 속에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린이전시실은 상설전시실로 운영되며, 앞으로 다양한 전시 전달 매체를 개발하여 풍요로운 전시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70년 첫날의 기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송찬섭

갑오년의 첫날을 오키나와에서 맞았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에서 새해 첫날을 맞은 것도 처음이었지만 동학 농민혁명에 관심 있는 연구자로서 오래전부터 동료들과 함께 갑오년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차라 비록 양력이지만 갑오년의 새날은 새로웠다. 사실 근현대사에서 동아시아는 일제에 의해 침략과 지배, 학살을 당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그 핵심현장의 한 쪽이 한반도라면 또 다른 한쪽이 오키나와일 수 있다. 오키나와는 1879년 일본에 의해 지배를 당했지만,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함으로써 더 이상 일본지배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 갑오년은 우리 못지않게 중요한 해다.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는 말처럼 동아시아의 다른 한쪽에서 우리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로 근현대사를 기념하는 공간을 찾아 나섰다. 관광지가 아니어서 재일교포 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서승이 쓴 ‘동아시아 평화기행’을 많이 참고하였다.

오키나와는 무엇보다도 일제의 지배와 전쟁강요, 이에 따른 미군의 공격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오키나와에는 희생자에 대한 기념비와 추도 시설이 많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의 차이는 크다. 일제의 무모한 제국주의전쟁과 천황제 호지(護持)를

위한 아시아 민중의 희생으로 보는 시각과 서구제국주의에 의한 일본의 희생이나 국가(일본)와 민족을 위한 국민의 산화, 옥쇄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오키나와전투의 최종전투지였던 곳에 세운 드넓은 평화기념공원이다.

이른바 평화기념공원은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복귀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일본의 초대 총리이자 일본제국의 추축(樞軸)이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초대총재와 전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남동생인 사또오 에이사구(佐藤榮作) 2대 총재를 사업자로 추대하고 오키나와 군사령관이었던 우시지마 미쓰루(牛島満)가 자살한 마부니(摩文仁)에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서승 선생은 평화기념공원이 아니라 전범기념 공원이라고 비판하였다. ‘평화의 역설’이 벌어지는 가운데 평화기념공원 안에 희생자 20만명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검은색 위령비를 출지어 세워 놓았다.

‘평화의 초석’이라고 부르는 나지막한 비석에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새기고 기념관을 통해 기억의 현재성과 연속성, 그리고 류큐(오키나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공원 한쪽 한국인 위령탑에는 유신시기였던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위령탑 근처에는 이은상 시인이 지은 ‘영령들에 바치는 노래’를

새긴 시비(詩碑)가 있었다. 희생자들이 희생당한 시점이나 희생을 애도하는 시점, 어느 쪽을 봐도 별로 진정성이 없는 듯하여 논란 많은 우금치의 ‘동학혁명 군위령탑’이 연상되었다.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조총련에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자 유신정부에서는 ‘오키나와 침투를 기도하는 북괴의 책동을 봉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서 먼저 제작했다고 한다.

오키나와 전투의 중요 전적지의 하나였던 가카즈 고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지인 고부 백산처럼 별로 높지 않지만 주변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새지였다. 지금은 후텐마 미군 기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세워 놓았는데, 이곳에서도 몇 개의 수상한 위령탑이 보인다. 이를테면 독도 때문에 잘 알려진 시마네현에서 세운 ‘시마네의 병(兵)’이 분전(奮戰)한 곳’이라는 기념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몇 개 되지 않는 위령탑 중에 ‘한민족 출신 오키나와전 전몰자 위령 청구지탑(青丘之塔)’이 있었다. 서승 선생은 탑을 세운 일본민주동지회라는 조직을 잘 알 수 없고, 아랫돌에 새겨진 문구도 석연찮다고 보고 있다. 혹시나 해서 일본사 전공자에게 물어보니 일본민주동지회는 1971년 조직된 우익단체이며, 대표인 마쓰모토 아키시게(松本明重)는 만주의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전후에는 정계 브로커를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가 ‘한민족’ 희생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서승 선생은 “이데올로기와 국경, 민족을 초월하는 척하지만” 본질은 “일본의 전쟁범죄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주체와 목적에 따라 기념의 해석은 상이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그간 술한 책자가 간행되고, 기념공간과 기념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듯하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동학농민혁명을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하다. 일례로 기억을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한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이나 기념관은 없거나 있다 해도 초라한 수준에 지나지 않다. 이 부분은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히메유리평화기념자

료관과 비교한다면 좋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해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노래, 연극, 영화 등이 충분하게 제작, 보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중요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기억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10여 년 전 전주에서 열린 10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때였다.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시민의 호응은 크지 않았다.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청중이 적었는데 유독 일본에서 온 청중은 한국인보다 많아 보였다. 아마도 국제학술대회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회의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당시 한 할머니가 앞자리에 앉아서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자료를 읽는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이들 일행은 바다를 건너면 길을 왜 왔을까? 우리에게는 혁명적 사건이요, 봉건세력에 대한 저항, 침략세력에 대한 전쟁이지만, 그들로 봐서는 바로 일본군이 저지른 학살사건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을 현재화하는 일과 민간의 연대만이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을 제대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서 이를 대하는 양상이 많이 달라질까?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동아시아에서 상징성이 커진 갑오라는 간지를 통해 1894년과 2014년이 서로 호응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새롭게 기대를 해본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국사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석·박사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청. 춘. 을. 바. 치. 다.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문병학

동학과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23년이나 되었네요

청춘기를 동학농민혁명과
온전히 함께 보낸 셈이지요



Q 문병학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대학에서는 국문학, 현대시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생 때 학교신문에 시를 실었는데 이 시를 고은 시인이 『노동문학』(창간호)에 '이달의 시'로 선정, 추천사를 써서 발표시켜 등단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졸업 후 서울 문화방송사 구성작가로 입사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인 '뽀뽀뽀' 대본을 쓰기도 했지요. 등단한 지가 25년이 넘었고, 그동안 꾸준한 문단활동으로 현재 한국작가회의 전북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우진문화재단, 한국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문병학 사무처장님과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이 참 깊지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동단협), 재)동학농민혁기념재단 사무처장 등을 맡아 일했고, 지금도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니까 동학과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23년이나 되었네요. 청춘기를 동학농민혁명과 온전히 함께 보낸 셈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갑오년 역사에 대한 보다 깊은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뒤늦게 원광대대학원 사학과에 들어가 한국 근대사를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6년 앞둔 1989년 『전북 문화저널』 6월호에 원광대 사학과 신순철 교수(현기념재단 이사, 원광학원 이사장)님의 '갑오농민전쟁 백주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의 글이 기고 되었지요. 이 글이 단초가 되어 1990년 1월 전북대 호남사회연구회에서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회 주비위원회'를 결성했고, 1991년 준비위원회로 발전되어 마침내 1992년 6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형태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약칭 동백사)가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김삼룡 원광대총장님, 조용술 목사님, 한승현 변호사님께서

공동회장직을 맡아 애를 많이 쓰셨지요. 이후 '동백사'가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사단법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1993년 7월 문화체육부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된 것은 우리 기념사업회가 처음이었지요.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Q 오랜 시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990년대 초에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한 기억 하나가 있는데, 1993년 3월 초였어요.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백주년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 99돌 범도민 걷기대회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전라북도 해당과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어요.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을 건넨 후 한참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근데 반란사건도 기념해요?"라고 말하더군요. 많이 당황했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관변단체가 아닌 순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처럼 열악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체육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지요. 지금은 쉽게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쨌거나 법인 등록을 하여 사업비를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우리 기념사업회가 재원확보 등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1백주년 기념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백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지요. 우리 기념사업회가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고, 이후 동단협 주최로 1994년 2월 26~27일 양일간 정읍시 일원에서 고부봉기 역사맞이굿, 1994년 4월 28~29일 양일간 전주시청 광장에서 백주년 기념사업의 메인행사인 기념대회를 '바로서는 역사, 다가서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펼쳤지요. 명의상 주최는 동단협이었지만 사업비와 사업추진 전반을 우리 기념사업회가 모두 책임지고 추진했지요.

우리 기념사업회가 추진한 중요한 것으로는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백추위'와 함께 전국의 기념사업 단체창립을 지원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1993.11.), 상주·예천·진주·완주·금산·남원·홍천·광주전남기념사업회 등을 창립시켰지요. 기념행사로는 전주입성 기념대회를 비롯하여 무장포고 범도민 걷기대회, 백산봉기 기념대회, 백주년 기념 학술제·무용제·연극제·그림전·시민강연회, 삼례봉기 기념대회, 찾아가는 역사교실, 동학기념 전북도민 마라톤대회, 한·중·일 석학들이 참가한 국제학술대회(2001), 대서사시 음악극 '천명' 전국 순회공연(1999)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 기반이 된 국회 동학농민혁명연구회 창립과 사무업무를 담당했고, 표석 하나 없이 버려져 있던 삼례봉기 터에 기념비(1996.10.)를 건립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완주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삼례봉기 역사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삼례봉기 역사공원 건립에는 우리 기념사업회가 거금 5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지요. 이밖에도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해봉환(일본→한국 1996.5.), 동학농민군 대둔산 최

후 항전지 규명 및 발굴(원광대 사학과 공동), 전주시 효자동에 자리한 전주역사박물관 건립 및 위탁운영 등의 특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출판사업으로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1993), 『실록 동학농민혁명사』(2000),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2001), 『전주성을 점령하라』(2013) 등 20여종의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Q 전주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동학농민군 전주성 함락을 들 수 있습니다. 전주성은 1893년 11월 작성된 사발통문거사계획 작성 때부터 농민군의 제1차 점령목표였습니다. 전주는 조선건국자의 본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서해안을 낀 곡창지대를 관할하는 수부로서의 의미를 지닌 곳이지요. 따라서 농민군에게 전주성이 함락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지요. 전주성 함락 소식을 접한 조선정부는 대신허의를 열어 청나라에 군대파병을 요청했잖습니까? 조선정부의 파병요청은 향후 조선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왔지요. 전주성이 함락되자 전국 각지 농민들이 봉기에 호응했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조선으로 진출했지요. 일축즉발의 정치정세 하에서 6월 21일 폭약으로 경복궁 성문을 부수고 일본군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조선의 내정을 쥐락펴락합니다. 나아가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동아시아가 일대혼란에 빠져들었지요.

동학농민군 전주성 함락은 최대전승이자 그 역사적 의미도 지대합니다. 프랑스하면 사람들은 에펠탑을 떠올립니다. 파리 에펠탑은 프랑스대혁명 100주년 기념탑이지요. 프랑스혁명 기념일은 7월 14일로 프랑스 혁명군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날입니다. 프랑스혁명군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은 곧 동학농민군 전주성 점령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사람들은 에펠탑을 세워 세계만방에 혁명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동학농민군 전주함락의 역사적 의미조차도 잘 모릅니다.

일제식민지시기, 민족분단,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시기 등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굴절로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 일개 지방사로 축소되고 왜곡된 채 한 세기를 지나온 탓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갑오선열들의 후손으로서 낫 뜨거운 일이지요. 우리는 갑오선열들께 중죄인입니다.

Q 전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해주세요.

전주성을 함락시킬 때 입성 경로였던 완산동 용머리고개, 전주성 서문과 남문, 전라감사 집무실이었던 선화당 터를 비롯한 전라감영 터 전체가 유적지이지요. 이밖에 도태조 이성계 영정을 봉안한 경기전, 완산칠봉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곤지산, 칠봉 7부 능선의 전주입성기념비,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시킨 뒤에 허겁지겁 농민군을 뒤따라온 초토사 홍계훈 부대가 진을 치고 수차례 농민군과 격전을 벌였던 완산칠봉, 곤지산, 다가산, 유연대 등이 있지요. 이밖에도 덕진공원에는 전봉준선생상, 손화중장군기념비, 김개남장군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기린봉 산자락에 동학농민군 진압대 우선봉장이었던 이두황의 묘가 있지요.

“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이던 1994년 전후시기 기념사업의 핵심은 역사바로세우기였습니다. 말하자면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온 갑오년의 역사를 혁명으로 제자리를 찾아주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요.

”

Q 올해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십니까?

혁명 12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사업회에서는 크게 전북지역 학생대회(4월), 전주입성기념대회(5월), 전북도민 걷기대회 및 전적지 답사(10월), 찾아가는 고교생 역사교실(11월)을 기본 축으로 정신선양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전주입성 기념대회를 여느 해보다는 다채롭게 풍성하게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정기공연을 전주입성의 의미를 주제로 한 규모 있는 창극을 제작하여 전주입성일을 기해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전주시립극단과 연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 의미를 추구하는 연극을 제작하여 전주입성 기념일 전후부터 6월 초순까지 덕진종합예술회관 등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Q 작년에는 ‘전주성을 점령하라’라는 전주·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전주와 완주지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읍이나 충남 공주 등에 있는 유적지 외에는 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주 완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들의 중요성 함께 그 의미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진면목을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온 정성을 기울여 출판한 책자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이던 1994년 전후시기 기념사업의 핵심은 역사바로세우기였습니다. 말하자면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온 갑오년의 역사를 혁명으로 제자리를 찾아주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요. 1970년대까지 금기시되어왔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본격화되어 각 지역별 전개양상을 비롯하여 이전에 밝혀지지 못했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규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학농민군 유족 현창사업에 힘을 기울여왔는데 이 점도 2004년 특별법을 이끌어내어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등등 아직도 너무나 많이 미흡합니다. 이점에 대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시기, 특히 1980~90년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현재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 초입 작금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상황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마치 120년 전 갑오년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웠던 일제식민지시기와 군사정권시기 충청도 계룡산, 전주의 모악산, 정읍의 내장산, 고창의 방장산쯤으로 치부되었던 왜곡과 축소를 서둘러 떨쳐내야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역사적 의미 추구를 통해 오늘 우리 삶의 좌표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독립운동까지 끊이지 않는 구국정신



참여자 김홍기의 증손 김동규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동학의 성지이며 김개남 장군이 대도소를 세웠던 남원에서 이를 증명해 주신 분들이 바로 김동규 선생님의 선조님들이다. 선생님의 김홍기 증조부와 김종문 조부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백산봉기, 전주성 입성 등에 함께 하셨으며, 재봉기 당시에는 김개남 장군이 떠난 남원에 남아 방아치에서 민보군을 상대로 격전을 펼쳤다.

이후 3·1 운동이 일어나자 숙조부께서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서를 인근지역에 전달하셨으며, 부친께서는 애학을 통해 동네 청년들을 가르치며 계몽운동과 애국심 함양에 앞장서셨다고 한다.

현재도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이어나가고 알리기 위해 왕성히 활동하시고 있는 김동규 선생님을 뵙고 정말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Q | 김동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Q |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원의 동학 대접주였던 김홍기 증조부님과 그 분의 아들 김종문 조부님의 후손 김동규입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임실에서 거주하였으나, 숙조부님 때부터 남원에 자리 잡고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Q | 증조부님과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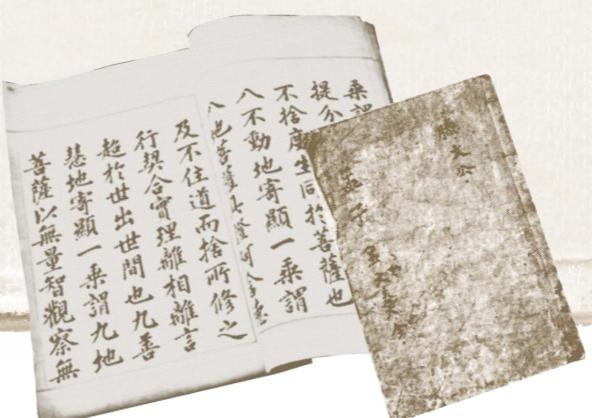
증조부께서는 1889년 장인으로부터 도를 전수받아 동학에 입도하시고 처음으로 남원에 동학을 전파하셨습니다. 왕성한 활동으로 5천호 이상에 포교를 하셨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접주가 되셨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고 최시형 교주가 임실의 최승우 교구장에게 동원령을 전달하자 그분께서 매부지간이던 저희 증조부님께 연락을 취해 임실과 남원이 동시에 기포하였습니다. 이후 남원의 농민군을 이끌고 백산봉기와 전주성 점령 등 동학농민혁명 전반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김개남 장군의 남원 입성 이후에는 집강소를 통해 남원지역을 통치하셨겠지요. 재봉기로 인해 김개남 장군이 북상한 후에는 주력농민군의 걸림돌이 되어오던 박봉양 민보군과 남원의 농민군들이 격전을 벌였던 방아치 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김종문 조부께서는 아직 15세라는 어린 나이였기에 동학농민혁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증조부님을 보좌하거나 연락책으로 활동하셨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Q | 두 분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어느 분께 전해 들으셨나요?

Q | 대체로 조모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인 분들 중 증조부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소장하고 있던 남원군 종리원사는 증조부님의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구전과 자료를 통해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어떻게 참여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Q 남원군 종리원사를 기념관에 기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으며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남원군 종리원사는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태홍 씨의 구술을 최병현 씨가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가 그 내용을 전해 받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종리원사는 남원의 천도교 운영장부와 동학농민혁명사를 합본한 책 한권과, 순교약력이라는 별책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원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모두 기록된 것 이지요. 저는 이 종리원사가 학자들의 손에 의해 연구되어 남원의 동학농민혁명사가 더욱 자세히 밝혀지고, 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본을 기념관에 기증하였고, 현재는 복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종리원사의 연구를 통해 남원의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연구는 물론, 동학농민혁명 유족 분들도 많이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중조부님과 조부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김개남 장군이 북상한 이후에 남원에서 벌어졌던 최대의 전투인 방아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남원의 농민군들이 패배한 후, 남원성에서 진열을 가다듬어 방어하였으나 역시 패배하고 말았고 이들을 지도했던 중조부님께서는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셨습니다. 조부님은 15세라는 어린나이였기에 투옥되시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옥살이를 하는데 혼자 집에 돌아갈 수 없었는지 옥사 옆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역적의 자손을 도와주면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였는지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조부님께서는 엄동설한에 입을 것, 먹을 것, 잘 곳도 마땅하지 않은 채로 노숙하게 되셨고, 동상과 기아로 많이 쇠약해지셨지요.

결국 중조부께서는 남원 장터의 임시형장에서 공개처형 되셨습니다. 조부님께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니 정신적인 충격 또한 만만치 않게 받으셨을 겁니다. 이후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 중조부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조부님을 들쳐 업은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중조부님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절차 없이 매장되었고, 조부님은 고된 생활에 몸이 견디지 못해 시름시름 앓으시다 3개월 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조부님이 총살되신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는 분을 뵙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해마다 그분께 세배를 다녔는데, 찾아 뵙 때마다 중조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Q 집안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속조부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속조부께서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3세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형을 잊게 되었지요. 그러나 피는 속일 수 없는 것 이었는지 속조부께서도 20세 쯤 되어 천도교에 입도하여 수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1운동이 시작되자 임실에 살고 있던 속조부께서 독립선언서를 받아 단신으로 장성, 구례까지 전달하셨습니다. 당시는 교통편도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50km이상 걸으셨고, 밤에는 천도교 교인의 집에서 묵으셨다고 합니다. 순천까지 독립선언서를 전하려고 하셨으나 감시가 심해져 전달하지 못하고 임실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검문이 더욱 심해져 산길을 이용하고, 담양의 대나무를 사서 장사치처럼 행세하여 검문을 벗어나온 하셨으나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주에서 망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서 쌀, 소금 장사를 하며 떠도는 생활을 하시다 남원에 정착하게 되셨지요. 저희 집안은 그때부터 계속 남원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께서는 좋지 않은 집안사정에도 불구하고 남원에 딱 하나있던 초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초등교육도 받은 이들이 드물었기에 20세 무렵에는 구청에서 부친을 행정서기로 특채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녹을 받으며 살지는 않겠다고 거절하셨지요. 이후 부친께서도 천도교에 입도하셨으며, 동네에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모아 야학을 통해 교육시키고, 계몽운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항일정신을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Q 중조부님과 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은 말 그대로 불길처럼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봉건제도의 압제에 펠박받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지요. 중조부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사시는 분이셨지만 누군가가 하라고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정신으로 국가의 위기에 맞서 울분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비록 성공한 혁명은 아니더라도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 나서셨던 그 분들의 뜻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뜻과 숭고한 정신을 더 많은 이들이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Q 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이 선조 분들에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에서 계획 중인 선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더 많은 이들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장기포 茂長起包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무장기포 茂長起包 의미

무장기포의 의미는 전봉준과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들이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무장 당산마을에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고 포조직을 일으켜 봉기했다는 데 있다. 여기서 무장은 지명 즉 장소를 설명하고 있고 기포는 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무장의 현재 행정구역은 고창군 무장면으로 고창군에 속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시대에는 무장현으로 고창현이나 흥덕현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고창현, 무장현, 흥덕현이 합쳐져서 고창군이 되었다. 따라서 전봉준과 손화중이 포고문을 발표하고 봉기를 준비한 당산마을이 1894년에는 무장현에 속하였다. 이를 때문에 장소적 의미를 무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포(起包)는 포조직을 일으켰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포(包)는 동학조직을 말한다. 동학의 조직은 접(接)과 포(包)로 설명된다. 접은 동학조직의 기본단위로서 교도들 사이의 인맥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한 접의 규모는 대략 가구 수로 35~75호였다고 한다. 이를 4인 가구로 환산해보면 140명~300명으로 같은 접의 책임자가 접주(接主)였다. 접이 늘어나 한 사람의 접주가 여러 개의 접을 거느리는 대접주(大接主)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를 대접주가 관할하는 중간조직이 바로 포(包)였던 것이다. 당시 손화중은 대접주로서 고창, 무장, 흥덕, 영광, 함평, 장성, 정읍 등 당시 전라도 서부 대부분의 동학조직을 관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사건을 '무장기포'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무장기포 茂長起包 전개

고부농민봉기 이후 고부를 떠난 전봉준은 무장현의 손화중을 찾아갔다. 전봉준은 손화중에게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키자고 설득하였다. 전봉준의 설득이 계속되자, 손화중은 마침내 봉기를 결정지었다. 고부농민봉기 단계에서 도모했던 확대된 봉기가 실현되는 순간이자, 농민혁명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드는 대목이었다. 1894년 3월 16일 무장현 동음치면 구암리 당산마을 일대에 손화중 휘하의 동학농민군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3일 동안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무기류를 빼앗아 오는가 하면, 동학을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다 처벌하고 군량미를 확보하였다. 이 같은 행동에 당황한 무장관아에서는 동학농민군을 설득하여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러자 동학농민군은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통보로 관아의 지시를 일축하였다. 무장관아의 힘으로는 수천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준비를 마친 동학농민군은 3월 20일 무장현 당산에서 무장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무장현을 떠난 전봉준과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3월 21일 고창현을 거쳐 22일 흥덕현의 사포와 후포, 23일 부안현 줄포를 지나 고부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부군을 점령하고 향교와 관청 등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 24일 고부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무장기포지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에게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과 부자(父子)는 가장 큰 인륜이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성스러운 뒤에야 집과 나라를 이루어 무궁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총명하며 슬기롭다. 현명하고 어질며 정직한 신하가 보좌하여 정치를 돋는다면 요순(堯舜)의 교화와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치세를 해를 보는 것처럼(분명하게)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봉록과 지위만을 도둑질해 차지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지고 아첨과 아양을 부려 충성된 선비의 간언을 요망한 말이라 하고 정직한 신하를 비도(匪徒)라 일컫는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는 돋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니 인민(人民)들의 마음은 날로 더욱 나쁘게 변해 가고 있다. 안으로는 삶의 즐거움이 없고 밖으로 제 한몸 간수할 방책이 없다. 학정(虐政)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이 이어지며,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드디어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다.

관자(管子)가 말하기를 "예의 엄지(禮義廉恥)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망한다"고 했는데,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하다. 공경(公卿)으로부터 백수령(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살찌우고 제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 생각하고, 벼슬아치를 뽑는 일을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장소를 온통 사고파는 저자거리로 만들었다. 허다한 재화와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나라에는 쌓인 부채가 있는데도 깊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가 어루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수령들이 재물을 탐하고 사납게 구는 것이 까닭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약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런데 보국안민의 방책을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짓고 오직 저 혼자서 살 길만 도모하면서 벼슬자리만 도적질하니 어찌 올바른 이치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초야(草野)의 유민(遺民)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임금이 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기회 앉아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온나라가 마음을 같이하고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무장 동학포고문

대고 의논하여 이제 의기(義氣)를 들어 '보국안민(輔國安民)'으로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노니, 오늘 이러한 광경은 비록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고 다 함께 성군(聖君)의 교화를 누릴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노라.

무장포고문에 담긴 의미

무장포고문의 발표는 전봉준과 손화중이 전국적인 농민항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조선전역에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포고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포고문을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생각이 반영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전봉준은 이 포고문을 통해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당시 조선의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포고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은 1894년 당시 조선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전봉준은 봉기를 일으킨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정·문경민·김원용,『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5

신순철·이진영,『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 황해도 지역의 봉기와 전투 >

김대환 (만화가)

황해도는 경기 이북에서 가장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2개월여의 항쟁으로 농민군의 활동이 마감되었지만 그 위세가 삼남지방에 못지 않았다.



황해도 역시 9월 제봉기가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농민군의 봉기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서해연안의 군현에서 활발히 봉기가 이루어졌다.



10월 6일 수만 명의 농민군이 해주에 모여 여러 조항의 폐정을 제출하고 해산하였다.



임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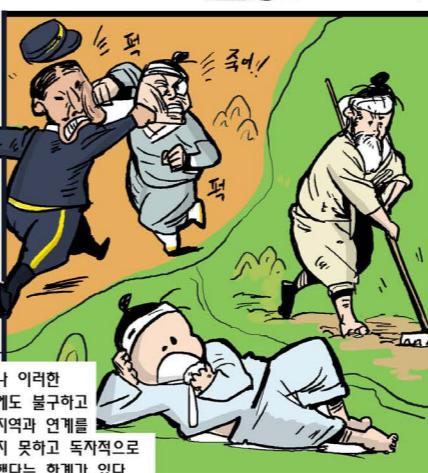


이들은 관사를 불태우고 일본군이 설치한 전신기기를 모두 파괴하였다. 김천도 농민군에게 점령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평산과 김천의 농민군들은 서울에서 파견된 일본군에게 쫓겨나게 되었다.



황해도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과 연계를 꾀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는 한계가 있다.

해주감영에서 물려난 농민군들은 황해도 곳곳의 관아를 잇달아 점령했다.



황해도



이와 같이 9월 제봉기 당시 조선 전역에서 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나 일본군과 맞서 반일항쟁을 전개하였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갑시다 !!

전라 서남부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배상옥

{ 배상옥, 전라도 무안에서 일어나다 }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안출신의 농민군 지도자 가운데 제일 앞머리에 배규인(裴圭仁), 배규찬(裴奎贊)을 들고 있다. 배규찬은 배규인의 동생이다. 배규인은 본관이 달성이며 보명(譜名)은 규옥(圭玉)이고 공문서에는 규인(奎仁, 圭仁)으로 기록되었으나, 동학농민혁명 전후에는 상옥(相玉)으로 통칭되었다. 배상옥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당시 무안 현 삼향면 대월리로 현재의 목포시 대양동이다. 배상옥은 달성 배씨의 집성촌인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에서 살다가 선대에서 대월리로 이사했다. 구전에 따르면 배상옥은 기골이 장대했으며, 그 집안은 1000석꾼으로 지붕 처마자락에 풍경을 달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다고 한다.

『순무선봉진등록』에 따르면 무안은 “농민군의 소굴[匪類之巢穴]”이라고 할 정도로 거괴가 많았다. 그중 배상옥·배규찬 형제는 무안의 “거괴”로 전라 서남부 연해지역에서는 “괴수자(魁首者)”라고 칭해 졌으며,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등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선무사이규태왕복서(宣撫使李圭泰往復書)』에는 “부내 비류에는 각 접이 있고 접주는 즉 그 우두머리이다. 이를 크기에 따라 대소별로 나눈다면 무장의 손화중과 무안의 배상옥은 각각 수만의 포중(包衆)을 포용하고 있어 전봉준·김개남보다 몇 배나 더 크다. 그러므로 만일 그 거괴(巨魁)로 논한다면 당연히 손화중과 배상옥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최경선, 오권선, 이사명, 남옹삼, 이방언 등 10여명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나주성 전투와 고막원 전투를 거치며 }

배상옥이 이끄는 무안지역 농민군의 활동은 집강소 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전주성을 점령해 있던 농민군은 5월 8일 관군 측과 이른바 〈전주화약〉을 맺고 철수하게 된다. 전주에서 해산한 농민군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폐정개혁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무안 일대는 배상옥이 통할하였다.

무안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된 장소는 청천리 소재 달성 배씨의 사당인 청천재 혹은 달성 배씨의 재실로 알려져 있다. 배상옥이 이끄는 서남부 지역 농민군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탐관오리와 불량한 토호들을 징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안의 대접주 배상옥은 목포, 장흥, 강진, 영암, 해남, 진도 등 호남 서남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며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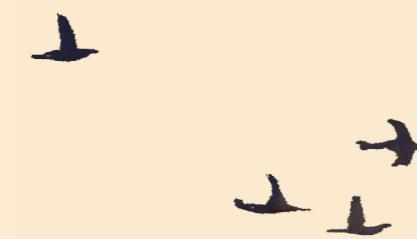
제2차 기포 때도 무안에서는 배상옥이 2천명을 거느리고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상옥이 전봉준과 함께 북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 배상옥은 역시 북상하지 않고 광주에 옹고하고 있던 손화중, 오권선이 이끄는 나주 농민군과 합세하여 나주성 공격에 나서게 된다. 손화중은 10월 21일부터 나주 수성군과 침산과 선암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하여 광주로 후퇴하였다. 11월 초에는 광주에 있던 손화중과 최경선, 나주의 오권선 뿐만 아니라 무안의 배상옥도 연합하여 나주성을 공략하고자 하였다. 손화중, 최경선, 오권선이 이끄는 동학군은 북쪽 지역에서, 무안의 배상옥은 서남쪽 함평 고막포에서 동시에 나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때 무안 대접주 배상옥은 나주를 향해 진격하여 11월 17일 무렵 나주 외곽 30여리 지점에 있는 고막원(古幕院) 주변에 진을 쳤다. 나주목사 민종렬은 나주 수성군에게 출동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8일 아침 고막원 동쪽 청림산(靑林山, 多侍面文洞里)과 호장산(虎壯山, 虎長山, 多侍面松村里), 진등참(多侍面東谷里文洞里) 일대에 포진하고 있던 농민군을 공격하였다. 농민군들이 대포의 위력을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였으며, 추적해오는 관군을 피해 고막교를 건너던 농민군들은 마침 밀려온 조수로 물이 넘치던 다리 밑으로 빠져 죽기도 했다.

{ 나주초토영에서 잠들다 }

이후 배상옥이 이끌던 농민군은 대월리에 집결하여 장흥전투에 합류하여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영암 등지로 가는 길목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신한 배상옥은 해남의 바닷가인 은소면(현재 송지면)의 한 마을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12월 24일 장정들을 데리고 공격한 윤규룡(尹奎龍)에게 잡혀 관군에게 넘겨졌다. 당시 배상옥에게는 그의 위세를 말해주듯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일천량이라는 거금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배상옥의 마부 김종곤(金鍾坤)과 그의 수종 윤석호(尹石浩)·윤문여(尹文汝) 등이 그날 함께 체포되었다. 이규태는 배상옥을 나주 초토영으로 보내지 않고 현지에서 처형하였다. 그가 해남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민중들은 애달픈 심정을 이기지 못해 “상옥아 상옥아 배상옥아, 백만 군대 어디 두고 쑥 국대 밑에서 잠드느뇨”라는 민요를 숨어서 불렀다 한다. 혈육으로는 당시 여섯 살이던 딸 하나가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숨겨서 키워 키워 같은 마을(대월리) 전주 이씨 집으로 출가하였으며, 외손인 이성동의 아들이 영귀가 현재 생존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향섭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

두 번째 이야기

입법국민의회의 인민주권과 자유의 보장

입법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는 제헌국민의회를 계승했지만 다시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혁명을 한 셈이었다. '1791년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프랑스는 공화제에 근접한 입헌군주제를 수립했다. 이제 왕은 단지 국민의 최고 종복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이 행사하게 되었다. 헌법은 농동시민이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농동시민은 25세 이상으로 현주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국민방위대에 등록 되었으며, 시민법에 선서했고 하인 신분이 아니며 최소 3일간의 노동량에 해당되는 연간 2-3리브르의 직 접세 납세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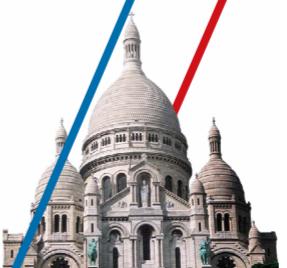
제2차 선거인은 150-200일 노동량의 동산소유나 용익권자, 또는 100-150일 노동량 가치만큼의 집 차 용자, 400일 노동량의 재산을 소유한 농민 또는 소작인이었다. 당시 430만의 성인 남자 중 약 60% 가 농동시민이었으며, 100명에 한 명, 151-250명에 두 명의 선거인으로 선정되어 제2차 선거인은 모두 4만 명이었다. 현마다 세 명씩 선출되어 74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의회는 바툴 의장의 주재로 1791년 10월 1일에 개회했으며,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푸양파 264명,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급진적 공화주의의 자코뱅파 136명, 온건한 공화주의의 지롱드파 345명으로 구성되었다. '1791년의 헌법'은 구제도를 완전히 허물지 못했고, 다만 가진 자들의 지배를 보장했다는 의미에서 '부르주아 시민헌법'이었다.

의회는 단원제 체제였고 2년을 임기로 하여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로 이루어졌다. 의회는 상설이고 불가침권 및 법안제출권을 가졌다.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안전 및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국가최고법원에 기소하며, 외교위원회를 통해 대외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절대권을 가지고 왕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었으며, 국가에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었다.

국민공회의 상퀼로트에 의한 공화정과 공포정치

7월 11일, 입법국민의회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음을 선언하고 젊은이들이 군에 지원하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했다. 마르세유에서는 루제 드 릴Rouget de l'Isle이 알자스에서 작곡한 〈라 마르세예즈, La Marseillaise〉를 힘차게 부르며 파리로 행군했다.



이 혁명가는 1795년에 프랑스의 '애국가'로 채택되었으나 1815년 이후 한동안 폐기되었다가 1879년에 다시 '애국가'로 복원되었다.

국왕의 바렌 탈출 실패와 더불어 1792년 7월 말부터 거세진 반 국왕운동을 구실로 의회는 왕권을 폐지하고 '국민공회, Convention nationale'의 설립을 결의했다.

8월 9일에서 10일 밤까지 파리는 혁명의 열기 속에 휘말려 4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8~9월에 상퀼로트가 지배하는 새로운 파리시 코뮌이 제1차 공포정치를 실시하자 왕당파들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파리의 각 구에서는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택 수색이 이루어졌고, 500명 정도의 '협의자'가 체포되었다.

혁명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혁명 모자(프리지아), 자유의 아버지 초상, 자유의 나무 등의 상징물을 부각시켜 혁명 정신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막대기 묶음에 도끼를 끼운 로마 시대의 권표(faisceaux)와 같은 장식물과 브루투스, 카토 등과 같은 공화주의자들의 애국심을 대입시켰다.¹⁾

국경지대의 허술한 틈을 타고 프로이센군이 침공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메츠군을 지휘하던 켈레르망 장군과 뒤틀리에 장군이 합세한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 군을 물아냈다. 상퀼로트로 구성된 프랑스군이 전투에 승리하자 괴테의 말과 같이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1792년 9월 21일에 보통선거로 뽑힌 749명의 새 의원들이 혁명정부를 이끌었다. '국민공회'는 소집되자마자 왕정을 폐지하고, 다음날 공화정을 선포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달력을 버리고 새로운 '공화력'을 채택했다.

왕정이 폐지되면서 왕의 초상화도 폐기되었다. '국민공회'는 제1공화국을 선포하고 국새에 새길 프랑스 혁명의 표상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구현해냈다. 즉 여성의 풍만한 육체를 이용해 혁명의 이미지로 프리지아 모자를 쓰고 창을 든 '마리안, Marianne'을 탄생시켰는데, 프리지아 모자는 '자유'를, 거울은 '진실'을, 곡식다발은 '농업'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마리안은 공화국과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서 당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던 마리Marie와 안Anne이라는 이름을 합한 것이었다.

1) Jean de Viguerie, "Eglises et Pouvoir Politique", Actes des Journées Internationales d'Histoire de Droit d'Angers, 30 mai 1er juin 1985, Angers, pp.333-334.



3

1/2/3 마리안

혁명은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쿠통 등을 주축으로 한 자코뱅이 주도했다. 자코뱅이 집권당시에는 600개, 1793년에는 800개, 1794년에는 2000개의 클럽으로 증가했다. 자코뱅은 산악파, 혁명정부, 공포정치를 주도했다. 자코뱅의 힘은 전국에 설치된 지부와 파리 상퀼로트의 위세에서 나왔다.

자코뱅은 혁명의 슬로건을 대불동맹과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려고, 공화국의 상징인 마리안과 걸맞게 “조국애·평등·자유”로 바꾸었다.

초기 국민공회는 160명에 불과한 지롱드파가 이끌었으나 사실상 그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웠다. 1793년 6월, 바래르, 시에예스 등 소택파의 지지로 다음해 7월까지 산악파가 의회와 혁명정부를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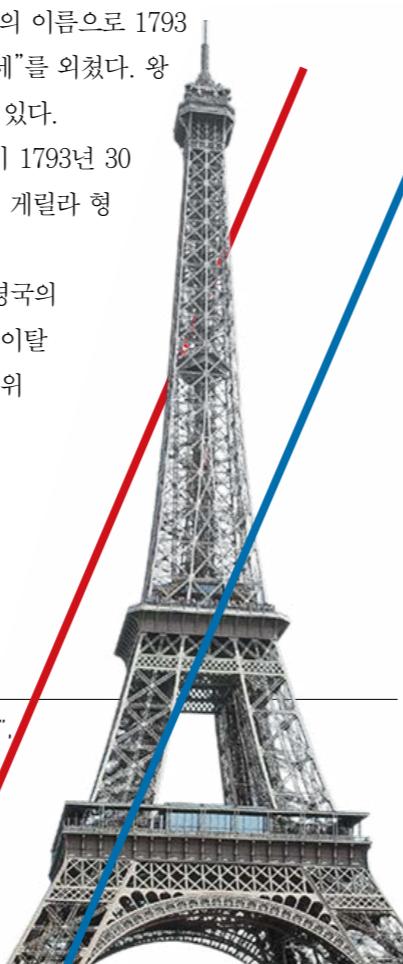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이끄는 산악파는 상퀼로트의 운동에 적극적인 찬사는 보내지 않았지만, 그들을 후원하고 교우하면서 공포정치를 전개했다. 12월 5일, 로베스피에르는 미라보와 엘 베시우스의 흥상을 과파하고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일반의지론을 정치원리로 활용했다.²⁾ ‘국민공회’ 제4대 의장, 베르트랑 바래르는 인민을 배반한 루이 16세에게 42가지의 질문을 던져 심문했다. ‘국민공회’는 루이 16세를 인민의 소집 없이 재판하고, 인민의 이름으로 1793년 1월 21일에 단두대에서 처형하자 군중들은 환호의 뜻으로 “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왕이 처형된 ‘혁명 광장’은 오늘날 ‘콩코르드 광장(화합의 광장)’이라 부르고 있다.

왕의 처형으로 혁명은 끝이 나지 않았다. 충격을 받은 방데 지방 농민들이 1793년 30만 정집령을 계기로 왕당파들이 응집해 ‘올빼미당, chouannerie’과 합세해 게릴라 형태의 대대적인 반란(1793~1795)을 일으켰다.

각국의 군주들도 루이 16세의 처형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비교적 온건한 영국의 피트 수상조차 대불동맹에 앞장섰다. 여기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독일, 이탈리아의 제후들과 러시아, 에스파냐 왕이 가담하면서 프랑스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국민공회’는 82명의 의원들을 각 지방에 파견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징병을 독려하면서 혁명 추진에 열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보르도의 탈리앙, 릴의 르봉, 리옹의 푸셰, 콜로 데르부아, 낭트의 카리에 등은 징병에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따라서 1793년에 63만, 다음해 여름에는 80만 명의 군대가 확보되었다. 군대는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 툴롱,

2) “Ddicace de Maximilien Robespierre aux mnes de Jean-Jacques Rousseau”, dans Charlotte Robespierre et ses Moires, par Hector Fleischmann, Albin Michel Editeur, pp.290-292.



방데 등지에서 전승을 거두어 혁명정국의 안정에 기여했다. 당시 35세의 젊은 로베스피에르는 산악파를 주축으로 상퀼로트와 평원파의 지지 아래 국민공회,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치안위원회 등 혁명추진에 필요한 기구들을 장악했다.

그는 의회와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청렴공, L'incorruptible’으로 추앙받았다. 그는 평화 시대와 달리 혁명 시대에는 ‘공포’가 덕이라 생각했다. 그는 독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혁명정부로 난국을 타개하려고 상퀼로트의 힘을 끌어 들여 혁명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했다. 1793년 9월 5일, ‘국민공회’는 의회를 점거한 상퀼로트의 위협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공포정치’를 의제로 삼았다. 특히 혁명재판소에서는 반혁명범죄자를 다루었는데, 이른바 ‘카니발재판소, tribunal de cannibales’를 설치하여 일단 판결을 내리면 피고는 상소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재판장 에르망과 악명 높은 푸키에 탱빌은 파리에서만 1만 7000명을 처형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빵 가격 인하, 제품 가격 및 임금의 공정화, 국유재산 분할 및 매각 등의 조치를 취했고 아씨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게했다.

1794년 3월 말 그는 반혁명분자로 당통과 관용파를 체포해 처형함으로써 불안요소들을 제거하고 공포정치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극단적인 자코뱅들에 대한 반감과 함께 탈중앙집권과 공화국의 생존을 중요시하는 그룹의 성장으로 로베스피에르는 처형되고 공포정치가 막을 내렸다.

“혁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것은 민중들의 염원을 의회가 수용하여 주권재민 사상을 기반으로 혁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혁명의 모델은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이었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793년 헌법의 전문이 되었고, 1958년 프랑스 헌법에 통합되어 오늘날까지 프랑스 민주공화정의 정치원리가 되고 있다. 혁명의 전개과정에서 파괴와 건설, 공포와 평화, 학살과 정권교체, 탄압과 자유, 독재와 공화, 좌파와 우파 등 서로 상반되고 염룩진 상황으로 혁명에 혁명을 거듭하며, 대불동맹군의 침입 속에 나폴레옹의 출현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혁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근대 시민국가·자유 민주국가를 탄생시키는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충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서정복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흔을 찾아서(5)



지난 이야기 – 오동단은 사발통문의 세 번째 조각을 찾기 위해 공주 우금치 전적지로 향한다. 우금치 전적지에 도착하여 주변을 수색하던 중 태일은 작은 폭포 안에 감춰져 있던 동굴을 발견한다. 그 안에서 일본군복장을 한 유골의 손에 들린 사발통문 조각을 발견하나, 일본군의 혼령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한다. 태일은 혼령과 싸우다 위기에 처한 전봉준 장군대신 일본군 혼령의 검에 찔리고, 격분한 전봉준 장군은 일본군 혼령을 쓰러트린다. 전봉준 장군은 자신을 희생하여, 죽어가는 태일을 살려낸다. 태일은 전봉준 장군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깊은 실의에 빠지나, 김개남 장군의 충고에 정신을 차린다. 그 순간 그들을 추격해온 조덕배의 수하들이 다솜을 인질로 잡고 사발통문 조각을 빼앗으려 한다. 장군들은 아이들을 지키려 했으나 태일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그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가까스로 도망친 태일은 붙잡힌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조덕배의 집으로 향한다.

조덕배의 집은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근무를 서고 있었고, 수하들이 계속 주둔하고 있기에 태일은 일단 몰려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조덕배가 자신의 집에서 자선파티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태일은 그때가 아이들을 구출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일은 우연히 같은 반의 민수가 조덕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민수와 금새 친구가 되어 파티가 열리는 날 초대를 받게 되었다.

파티 날 저녁, 태일은 민수의 초대로 조덕배의 집에 들어간다. 자선파티에는 수많은 초대 손님들로 인산인해였다. 조덕배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움직이느라 분주했고, 경비원들 또한 파티의 화려한 분위기에 취해 허술해 보였다. 태일은 분위기를 살피다 적당한 시점에서 아픈 것처럼 자신의 배를 감싸 쥐었다. “태일아, 왜 그래?” 민수는 아파하는 태일에게 걱정하는 얼굴로 물었다. “너무 빨리 먹다 체한 것 같아. 민수야, 화장실 어디 있어?” 민수는 태일을 집안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했고, 태일은 바깥의 동태를 살피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화장실에서 나와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방을 돌아 다녀도 아이들의 모습은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계속 해서 궁리하던 태일은 문득 자신의 발에 걸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어, 이게 뭐지?” 방바닥에 정체 모를 작은 고리가 있는 것을 본 태일은 그것을 잡아 당겼다. 그러자 바닥의 타일 중 하나가 마치 문처럼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아래로 내려가는 검은 계단이 눈앞에 나타났다. 태일은 그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 갈수록 어두워지던 계단은 마침내 끝이 나고, 그 앞으로 마치 미로같이 보이는 통로가 펼쳐졌다. 그때 태일은 통로 중 한 곳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한다. 태일은 다가가 그 물체를 집어 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그것은 바로 다솜이가 늘 옷에 달고 다니던 작은 꽃모양의 브로치였다. 다솜이 친구들을 구하러 올 태일을 위해 갈래 길에서 자신들이 지나간 길을 표시해줄 물건을 남긴 것이다. 태일은 다솜의 브로치가 남겨진 통로를 따라 들어가고, 어두컴컴한 통로 끝에서 아이들이 갇혀있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던 경비원은 파티를 즐기느라 감시를 태만히 하는 중이었다.

“애들아, 괜찮아?” 태일은 아이들을 구출해 다시 통로를 빠져왔다. “이 꼬마 녀석들!”

그 순간, 조덕배의 수하들이 앞을 가로 막았고, 아이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혔다. 아이들은 조덕배에게 끌려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발통문 조각들을 내놓아라!” 태일이 할 수 없이 사발통문 조각들을 조덕배에게 건네려는 순간,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취객이 실수로 식탁에 세워져있던 촛불을 엎질러 불이 난 것이었다. 오동단과 조덕배는 다 같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무사히 밖에 도착한 오동단이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자, 조덕배가 주위를 둘러보곤 소리를 내질렀다. “민수, 민수야!” 조덕배의 아들 민수가 불이 난 집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었다. 그 순간 태일은 자신에게 물을 뿐 리곤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민수야! 민수야!” 태일은 필사적으로 민수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책상 밑에 웅크려 쓰러져 있는 민수를 발견했다. 하지만 태일 혼자서 비슷한 몸집의 민수를 구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태일은 조금이라도 버티기 위해서 자신의 젖은 옷을 민수와 자신의 입에 대며 베톤다. 그리고 태일 역시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속에 정신을 잃어 갈 때쯤 출동한 소방관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태일은 정신을 잃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모든 불길이 진화되고, 태일은 정신을 차린다. 태일이 눈을 뜨자, 그가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소리치며 태일을 켜안는다. “애들아, 나 괜찮아.” 태일은 아이들과 포옹을 나누고, 민수의 안부를 묻는다. 그때 태일의 앞에 조덕배가 나타난다. 조덕배는 태일의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조덕배는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아들 민수를 구해준 태일에게 연거푸 감사의 절을 했다. 태일은 그러한 조덕배의 잘못을 용서했다. 그리고 조덕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발통문 조각을 태일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나는 역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감추어야만 했단다. 그러나 이제서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모든 문서의 조각이 모아졌다. 태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발통문 조각과 조덕배에게 받은 사발통문 조각을 합쳐 마침내 사발통문의 완성본을 되찾았다. 그 순간, 사발통문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고, 5대 장군이 그 빛을 중심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봉준 장군은 오동단에게 “너희들의 용기로 마침내 사발통문을 완성하게 되었구나. 비로소 왜곡되어 있던 역사의 참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고맙구나.”라고 말을 건넸다. 그리고 5대 장군의 영혼은 하얀 빛과 함께 사발통문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태계 5대 장군들의 이름을 불렀다. 일 년 뒤, 정읍초등학교 아이들은 현장학습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한다. 그 곳에서 아이들은 해설자의 설명을 듣는다.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은 부정부패한 조정과 관리들의 횡포,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중들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이후에 3·1 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설명을 경청하는 아이들 다섯 명이 서있다. 바로 오동단이다. 오동단 앞에는 완성된 동학의 혼, 사발통문이 반짝이는 유리 속에 전시되어 있다. 오동단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끝〉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동학농민혁명의 삼장군 중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김개남장군의 거점은 남원이었다. 전주성 점령을 통한 전주화약과, 전봉준 장군과 전라감사 김학진의 대담을 통해 관민상회가 이루어지며 남원대도소가 세워졌고, 남원은 전리좌도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남원은 동학농민혁명 재봉기 당시에도 가장 많은 농민군이 집결한 곳이며 민보군과 농민군 사이에 가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곳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 다수의 전적지와 도성, 그리고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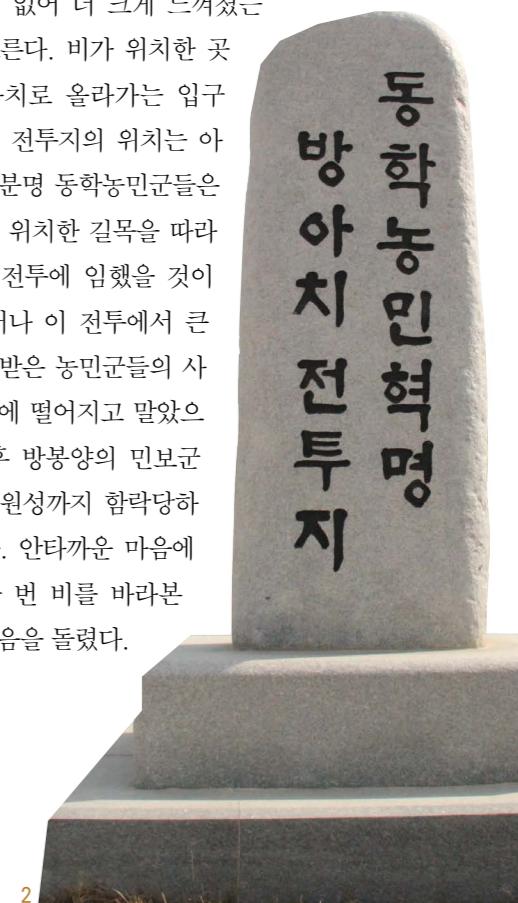


[방아치 전투지]

2014년 청마의 해가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설이 지나고 2월도 절반이 넘어가고 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 즉 2주갑을 맞이한 해이기에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더욱 아쉽다. 1894년 갑오년 이후 10간과 12지가 돌아가며 짹을 이룬지 예순 번 만에 다시 ‘갑’과 ‘오’가 짹을 이루고, 이가 두 번 반복된 후에야 동학농민혁명 2주갑이라는 세월이 완성된 것이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이 난에서 혁명으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갑오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는 그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되살아날 수 있는 해가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기념할만한 해의 첫 답사를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하는 고민 끝에 김개남 장군의 거점이자 동학의 성지인 남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중에서도 처음은 남원의 박봉양 민보군과 농민군 사이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방아치 전투지로 향했다.

방아치 전투는 동학농민혁명 중 남원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전투였다. 김개남 장군이 5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북상하자, 운봉에 진을 치고 있던 박봉양의 민보군이 남원에 잔류하고 있던 농민군을 공격하여 남원성을 빼앗았다. 그러나 대규모의 농민군이 남원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비운 채 다시 물러났다. 이후 주력농민군의 북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운봉의 농민군을 몰아내기 위해 유복만, 남옹삼 등 지도자들이 이끄는 농민군이 남원성에 입성하였다. 이들은 운봉을 공격하였으나 민보군이 경상도에서 지원받은 신식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 박봉양의 유인책에 말려들어 불리한 전투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농민군은 소떼를 앞세워 공격하는 등 분투하였으나 약 28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접주 5명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전사하는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방아치 전투지를 찾아가는 길에 무더진 칼바람과 포근한 날씨가 기분을 살짝 들뜨게 만들었다. 굽이치는 언덕을 오르다 언듯언듯 보이는 아지랑이에 봄의 향기도 느껴졌다. 갑오년의 봄이다. 동학농민군들이 꿈꿔왔을 봄의 초입에 그들이 목숨 바쳐 항쟁했던 전적지를 찾아간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감상적이기도 했다. 어느새 오르막이 내리막이 되고 굽던 길도 평나 반듯해졌을 무렵 방아치 전투지 기념비에 다다랐다. 이 기념비는 2007년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심의위원회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함께 세운 것이다. 기념비의 첫인상은 거대하다는 것이었다. 2층으로 이루어진 빙침과 비의 높이를 합해 약 3미터는 돼 보이는 비가 평나 압도적이었다. 주변에 높이를 비교할 것이 없어 더 크게 느껴졌다. 지도 모른다. 비가 위치한 곳은 방아치로 올라가는 입구로 실제 전투지의 위치는 아니지만 분명 동학농민군들은 이 비가 위치한 길목을 따라 올라가 전투에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큰 타격을 받은 농민군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며, 이후 방봉양의 민보군에게 남원성까지 함락당하고 만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비를 바라본 후 발걸음을 돌렸다.



[쪽뜰 농민군 주둔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쪽뜰 농민군 주둔지였다. 남원 일대를 위협하며 농민군들의 활동에 제약이 되던 박봉양의 민보군을 상대하기 위해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홍기, 유복남, 남옹삼, 유태홍 등은 남원의 농민군을 이끌고 쪽뜰에 진을 쳤다. 쪽뜰은 방아치와 여원치로 가는 갈림길에 위치한곳으로, 이곳에 진을 친 것은 어느 쪽을 공격할지 민보군이 모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민보군에게 간파당하였고 오히려 유인책에 빠져 역공을 당하고 말았다. 쪽뜰은 넓고 평坦하여 진을 치기 적합한 장소로 보였다. 이런 점에서 남원의 농민군들이 이곳을 전열을 가다듬을 장소로 선택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쪽뜰이란 쪽이 많은 뜻에서 쪽뜰이라 불리다 이가 쪽뜰로 변화하여 지명이 된 것이라고 한다. 쪽의 꽃말은 추억이다. 이곳의 쪽들은 남색의 원료가 되는 그 푸르름으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전하였던 남원의 농민군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위해 꾀어났던 것일까.

현재 쪽뜰 주둔지에는 2009년 남원시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설립한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쪽뜰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국도 주변에 위치한 이 기념비를 오고가며 보게 되는 이들이 농민군들의 희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그리고 기억하기를 바래보았다.

[갑오토비사적비]

운봉에 진을 치고 남원일대는 물론 경상도 지역까지 위협하였던 박봉양의 민보군은 남원의 농민군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이 박봉양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가 바로 갑오토비사적비이다.

박봉양은 남원의 유명한 부자로 권세가 막강하였으며, 조정의 권세가를 섬겼기에 지방 관리들도 어찌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런 뒷받침에 기대어 무단 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악질 토호였다.



3



4

- 1 남원성
- 2 방아치 전투지
- 3 쪽뜰주둔지
- 4 갑오토비사적비
- 5 동학성지 남원기념비

그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전주화약을 이룬 농민군들이 폐정개혁을 시작하자 재산을 빼앗기거나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동학에 입도하였다. 그러나 입도 후에도 재산을 계속해서 빼앗기자 동학과 연을 끊고 많은 재산을 이용해 민보군을 결성하여 농민군에 대적하였다. 박봉양은 방아치 전투, 남원성 전투에서 농민군에게 승리하여 남원성을 점령하고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하였으나, 일본군과 경군이 전주에 도착했다는 소식들 듣고 자신이 저지른 약탈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 스스로도 세운 공보다 지은 죄가 더 많았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었다. 갑오토비사적비 주변에는 가지각색의 비석이 모여 있었다. 마치 갈 곳 잃은 비석들이 사방에서 옹기종기 모여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오토비사적비는 운봉초등학교 앞 도로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발굴되어 현재 위치로 옮겨왔으며 이때 후손들이 기단부를 만들고 '박봉양 一目(일목) 장군비'라는 글귀를 새겼다. 일목이라는 별칭은 박봉양의 눈이 한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붙은 것이라 한다.

비석의 외관은 매우 처참했다. 오른쪽 윗부분이 사선으로 쪼개져나간 데다가 글씨부분도 대부분 훼손되어 어떤 글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훼손이 누군가에 의한 것인지 땅에 묻혀있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오른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동학성지 남원기념비]

최제우는 경주에 거주하였으나 동학을 창도하고 포교하는 과정에서 관아로부터 사도난정이라는 죄목을 받고 남원으로 몸을 피하였다. 최제우의 이런 피신생활은 호남에 동학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에서 포교를 시작한 그는 교룡산성 안에 위치한 선국사의 한 암자에 은적암이라

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수도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최제우는 이곳에 은거하며 논학문, 권학가, 교훈가, 도수사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동학이라는 교의 명칭을 처음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동학성지남원기념비는 호룡불 모양으로 세워져 개성적인 기념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호남에 동학을 전파하고 이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시대의 등불로 밝혀낸 수운 최제우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 여겨졌다. 이 기념비는 2005년 남원문화원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세운 것으로, 선반에 책자를 올려놓은 듯 한 전면에 새겨진 칼노래는 수운 최제우가 은적암에서 수도하던 중 자주 불렀던 것이라 한다.

[교룡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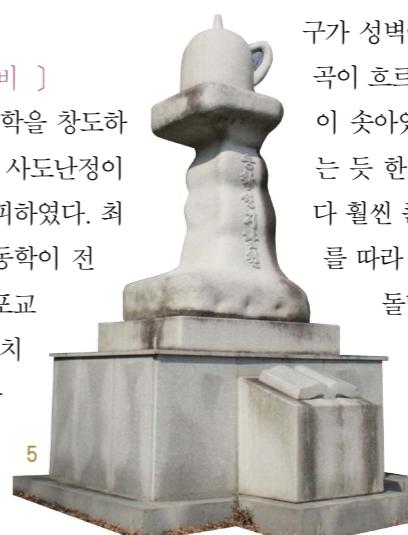
김개남 장군이 7만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남원으로 돌아온 후, 남원 읍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자 이들을 두 곳으로 나누어 주둔하게 하였는데 그 중 한 곳이 바로 교룡산성이었다. 이곳은 성내에 우물이 99개나 있고 계곡도 흐르고 있어 성을 지키기 좋은 곳이었으며,

남원의 20여개 성곽 중 가장 보존이 잘 된 곳이기도 하다.

꽤나 높은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교룡산성은 척 봐도 천혜의 요새로 보였다.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가는 입

구가 성벽에 가려있으며, 왼쪽으로는 넓직한 계곡이 흐르고 있고 입구의 오른쪽에는 가파른 산이 솟아있어 단단한 벽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듯 한 느낌이었다. 입구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큰 성내의 모습이 펼쳐졌다. 산의 경사를 따라 돌계단이 이어지고, 길 양쪽으로 쌓인

돌담장 안에 민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룡산성의 입



5

구에는 1993년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김개남 동학농민군 주둔지' 표지목을 세워 두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방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발길을 채촉했다.

[남원성]

남원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사각형 모양에 한 면의 길이는 3.4km, 높이 4m의 읍성이었다. 세월이 지나 많이 허물어 진 것을 최근에 일부 복원하여, 완전했을 당시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김개남 장군이 남원으로 들어와 7만여 명의 농민군을 주둔시켰던 곳 중 한곳이 바로 남원성이었다. 남원의 농민군과 민보군은 이 성을 사이에 두고 힘의 줄다리기를 함으로서 서로가 남원의 지배를 확고히 하려 하였다. 일부만 복원된 모습이었지만, 좌우로 길게 뻗은 모습이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올 정도로 남원성의 모습은 웅장했다.

성벽 안쪽의 둔덕에는 새 봄을 맞아 마른풀을 태운 모양인지 그을린 잔디들이 몽고반점처럼 박혀있었다. 둔덕을 밟고 성에 오르자 아래가 까마득했다. 두터운 성벽 길을 걸으며 이곳에서 농민군과 민보군이 어떤 전투를 벌였을지 상상해보았다. 그들은 방아치 전투의 커다란 패배에도 굴하지 않고 북상한 주력농민군을 위해 끝까지 항쟁하였다. 성문이 불태워지고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을 때 농민군들은 얼마나 비통함을 느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발길을 돌려 성벽을 내려왔다.

[요천훈련지기념비]

남원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요천훈련지였다. 이곳은 김개남 장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군과 대적하기 위해 회하의 농민군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곳이며, 전주화약 이후 남원대회를 개최하여 농민군의 사기와 척양척왜, 제폭구민

의 정신을 드높인 곳이다. 이곳에는 2007년 남원시와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건립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요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천변에 세워진 기념비는 탁 트인 대로변에 위치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촬영을 위해 계단을 오르자 강처럼 넓은 요천의 모습과 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아름다운 아치다리, 먼 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대관람차의 모습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1894년 당시에는 지금과 풍경이 많이 달랐겠지만 분명 김개남 장군도 요천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훈련한 농민군들은 청주성 공격과 방아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비록 패하고 말았지만 그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한 마음 또한 이곳에서 키워 나갔을 것이다. 기념비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 '지금은 당시의 원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귀 기울이면 그때 농민군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함성을 잊지 않고 보존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숙제일 것이다.



기념재단

사방통문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상생의 나무심기' 성황리 개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상생의 나무심기"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전북도립국악원의 풍물놀이가 펼쳐졌으며,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개회사와 천도교 교령 및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 회장의 축사에 이어, 나무기부자와 주요내빈이 참여하는 기념식수, 나무 이름표 달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대곤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동학농민군들의 꿈과 바램을 기리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계기 기념식수 120그루 기부캠페인 및 기념 식목행사」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과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당초 기대했던 120그루를 넘어 240그루가 기부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해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년도 시무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 전시실 개관



지난 1월 2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단 이사장실에서 2014년도 시무식이 열렸다. 이날 김대곤 이사장은 2013년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2014년을 맞이하여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전국화·미래화·세계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지난 1월 13일(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어린이 전시실 개관식이 열렸다. 어린이 전시실은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가지각색의 체험 기구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정읍부시장, 정읍시의원, 기념사업회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축사, 테이프커팅을 진행하여 어린이 전시실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개최하는 다과회가 열렸다.

2014년 정신선양사업 공모심사



재단 2기 3차 운영위원회 열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단체의 활동을 독려하여 효율적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실행하고자 지원금을 교부하는 정신선양 공모사업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월)부터 1월 17일(금)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전국에서 총 28개의 단체가 지원하였다. 재단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월 22일(수) 공모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정신을 받드는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단체에 지원하자'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총 26개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난 2월 7일(금) 용산역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전체 16명의 운영위원 중 14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한 후, 2013년도 결산,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 조성 설계추진 안,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제1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 결과보고 안을 검토하였다. 이 날 김대곤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건축 전문가를 토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TF팀을 통해 역사적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곤 이사장 포커스전북21 대담참여



재단 2기 3차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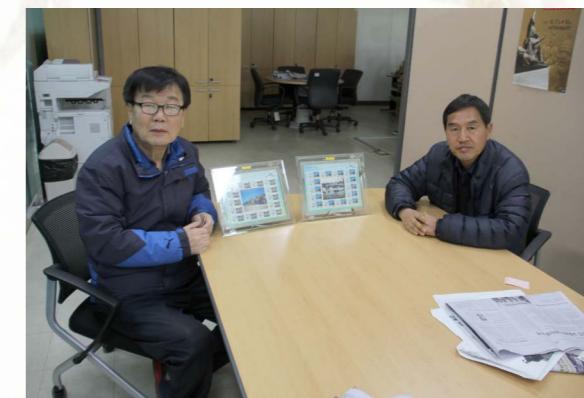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은 지난 2월 12일 (수) KBS 전주방송의 프로그램 '포커스전북21'에 참여하였다. 이날 방송에는 이이화 前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원도연 교수, 김양식 충북발전연구소장이 함께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의의,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아 기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기념일 제정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대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김대곤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외세를 몰아내 사람 이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혁명'이라 언급하였으며, '이번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라는 구호아래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한 번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는 인사로 대담을 마무리하였다. 해당 방송은 KBS전주방송총국(jeonju.kbs.co.kr)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120주년 기념사업 공동개최 실무회의



고부초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 기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3차 이사회가 지난 2월 21일(금)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 이사진이 참석하여 진행된 3차 이사회에서는 의결안건으로 2013년도 정신선양 사업 결산, 재단 정관 개정, 동학농민혁명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보고안건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추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사업 공동개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조사결과, 동학농민혁명 문화재 지정 추진계획,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계획, 기타사항으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동학농민혁명 홍보영상 제작현황을 심의 의결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천도교(교령 박남수)에서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공동개최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주최는 기념단체와 종교가 하나 되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첫 사례이며, 특히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제100주년 기념행사의 공동개최를 추진하던 중 결렬된 바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천도교 관계자들은 120주년 기념사업 공동개최 실무회의를 지난 1월 28일(화)(1차), 2월 7일(금)(2차), 2월 25일(화)(3차), 3월 7일(금)(4차), 3월 19일(수)(5차)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의 날짜, 장소, 행사내용, 식순 등 기념식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는 10월 11일(토)에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경정읍시민회 김정일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금) 고부초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기증하였다. 고부초교 100주년 기념 '나만의 우표'는 고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였던 지난 2006년 기증자의 주도로 제작되어 여러 매체에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우표는 고부관아를 배경으로 한 것과, 고부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것 두 종류로 제작되었으며, 이 날 두 종류의 우표가 모두 기증되었다.

김정일 부회장은 '나만의 우표'를 기증하며 '동학농민혁명 재조명의 단초가 된 우표를 잘 보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소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봉준 장군, 158주년 탄생 기념제 개최

지난 1월 10일(금)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강수)에서는 전봉준 장군의 탄생 158주년을 맞아 기념제를 개최하였다.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군의 총대장이자 총관령으로서 농민군을 지휘하여 황토현 전투, 황룡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주성을 점령하여 정부에서 폐정개혁안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이러한 전봉준 장군을 추모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주·평등정신을 계승하고자 매년 전봉준 장군의 탄생일에 기념제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조병의 고창군의회 부의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감사, 천안전씨 종친회 관계자, 기념사업회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강수 이사장은 "전봉준 장군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 배려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하였다.



원광대학교 이이화 전 기념재단 이사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원광대학교(이사장 신순철)에서는 지난 1월 22일(수) 역사학자이자 전 기념재단 이사장 이이화 선생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이화 선생은 평생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헌신하였으며, 원광대학교에서는 이를 높이 사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키로 결정하였다.

이이화 선생은 민족문화추진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문제연구소장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표저술로는 『이야기 인물한국사』, 『한국사이야기』 등이 있다.

이이화 선생은 이날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나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준비한 다과회가 이어졌다.



(사)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 사업회, 이갑상 이사장 연임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지난 1월 23일(목) 열린 정기총회에서 2014년부터 3년간 사업회를 이끌어갈 이사장에 이갑상 현 이사장이 연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신임 임원진은 부이사장에 유종국, 김봉승, 배선옥, 마길수 이사, 사무처장에 유신근 이사를 각각 선출하였으며, 정관개정을 통해 법인 명칭을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날 이갑상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정읍이라는 지역성을 탈피하고 전국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업회로 거듭날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오는 5월 개최하는 제47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2주간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김낙구 대표,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에 기부금 전달

(주)비건의 김낙구 대표는 지난 2월 10일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김동길)에 120만원을 기탁하였다.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는 매년 고부봉기일에 맞춰 고부봉기념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길)를 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불씨가 된 고부봉기의 의의와 그 정신을 기리고자 기념제와 재현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낙구 대표는 행사를 보다 알차게 치러줄 것을 부탁하며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고부봉기 기념제는 3월 5일(수) 이평면사무소 광장과 만석보 일원에서 열렸으며, 내외빈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북일보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특별기획 연재

전북일보는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이하여 지난 2013년 12월 31일(화)부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특별기획 연재를 시작하였다.

'갑오년 미완의 혁명, 세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연재되고 있는 이번 특별기획은 연중 50회 가량의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며, 김정열, 최명국, 권혁일 기자,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부장으로 이루어진 특별취재팀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위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취재팀은 '큰 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올바르게 기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사로 외연을 확대하는 길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는 작업이 될 것'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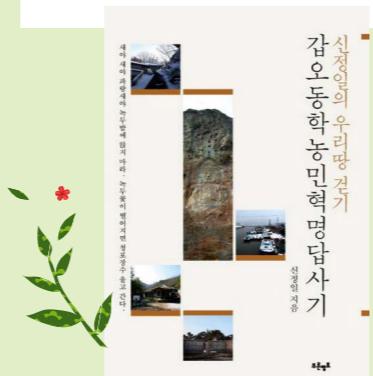
문화사학자 신정일 '갑오동학농민혁명답사기' 출간

신정일 문화사학자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한 '갑오동학농민혁명답사기'를 출간하였다.

사단법인 우리땅걷기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30여 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경험으로 2004년부터 2012년 말까지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전 10권)을 출간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황토현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에 출간된 '갑오동학농민혁명답사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전적지를 돌아보며 농민군이 봉건제도의 부패와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발자취를 찾아 기록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농민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동학사상을 다시 생각하고, 한울인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때가 지금'이라 밝혔다.



고부봉기기념제 및 재현행사 열려

고부봉기기념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길)는 지난 3월 5일(수) 정읍시 이평면 말목장터에서 고부봉기 기념제를 개최하였다. 고부봉기 기념제는 매년 고부봉기가 일어났던 2월 15일에 맞춰 열렸으나, 올해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병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3월 5일로 미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고부봉기 진군행렬 재현, 신사발통문 작성, 공로패 시상, 축사, 고부봉기 격문낭독 순으로 이어졌으며, 김생기 정읍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 내외빈과 정읍시민 3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제8대 회장에 김석태 부회장 추대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지난 2013년 12월 3일(화) 임시대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수운회관 9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2011년부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이끌어 오던 이왕재 회장의 사임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이기곤 상임부회장이 소집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왕재 회장의 남은 임기인 2015년 3월 5일(목)까지 김석태 부회장을 8대 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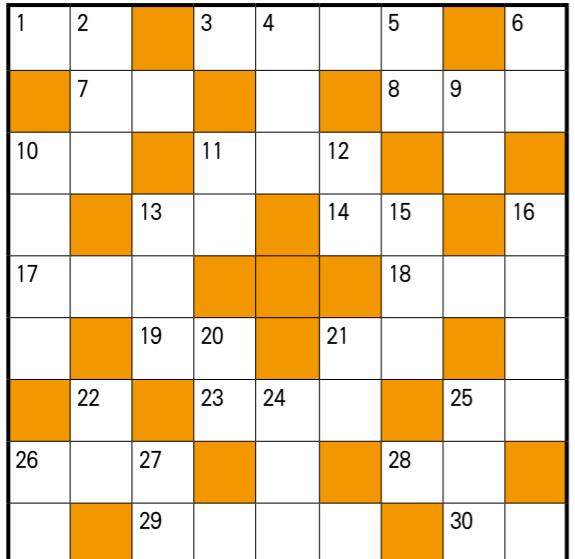


제 6 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정답

률	음	온	우	온	느	표	온	프
온	호	승	온	온	표	기	온	교
온	교	온	온	온	수	표	온	교
온	온	온	온	온	온	표	온	교
온	교	온	온	온	온	표	온	교
운	온	온	온	온	온	표	온	교
온	온	온	온	온	온	표	온	교
온	온	온	온	온	온	표	온	교
온	온	온	온	온	온	표	온	교

제 6 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47P 하단에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관광해설사
김수웅(金秀雄)

문제

동학의 창시자이며, 호는 수운(水雲). 1859년 경주 용담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동학을 창시했다. 이때 동학은 서학인 천주교에 대한항하는 뜻이었으나, 동학 속에는 유교·불교·민간 신앙은 물론 천주교적 요소(평등사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전으로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을 편찬하고 평등사상인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 사상과 현세구복(살아서 복을 구함) 등의 교리를 세워 포교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 고통 받던 농민층에게 큰 환영을 받아 1863년경에는 신도가 3천 명에 이르렀다. 그러자 정부는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이 분은 세상을 속여 백성을 괴롭혔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참형되었다

가로열쇠

- 悠久 아득하게 오래 /반만년의 ■■■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 나랏님을 도와 국정을 보살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輔國安民
- 民亂 ■■■은 지방 수령들의 팀학과 부정부패가 그 원인인것을 알아야
- 큰 재해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 왕명을 받들어 백성들을 위무하는 벼슬
-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맺은 ■■■보호조약
- 1960년 4월 19일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며 일으킨 운동
-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 한탕주의의 ■■■을 되풀이하지 말거
- 가톨릭에서, 예수의 최후의 민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 의식
- 최제우가 창건한 '동학'을 제3대 교주인 손병희가 개칭한 이름
- 181년 산행을 시작하면서 산신령께 한해의 안전산행을 기원하며 올리는 제
-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거나 행동을 함. 적절한 ■■■ 강구
- 조선 시대, 여러 관아에 속했던 최밀단직의 종구품 벼슬. 능■■■
- 나랏돈을 제 몫으로 슬쩍 챙겨 둔 걸 보면 그도 ■■■■■와 진배없다.
- 은 바닥 풍 해도 생도는 바람 풍 하라는 격과 무엇이 다르오
- 전국을 8도로 나누었을 때의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하나로 현 호남지역
-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의인화하여 쓴 소설을 ■■■소설/ 이솝■■■
- 천도교에서, 세상에 천도교를 널리 보급함을 이르는 말. 布德天下
- '도무지'등과 어울려 쓰인다. ■■■ 말이 없어 그 심속을 알기 어렵다.

세로열쇠

-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 장군과 농민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
-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국가적인 치욕을 겪은 날.
- 6기 지방선거는 2014년 6월4일 수요일(법정 공휴일지정)에
-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 /장렬히 ■■■한 동학농민군들
- 전국적 봉기의 시발점인 고창 ■■■ 기포지를 아시나요?
-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기 전에 경험하였다고 전해지는 신비체험 책.
-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를 절개를 갖추었다고 좋아하는 국민.
- 유럽과 미국/청일전쟁은 ■■■ 열강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의 승리로
- 1989년 5월 전국 교사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노동조합
- 동학농민군이 이곳에 진을 치고 뒤쫓던 관군을 무찌른 첫 번째 전승지
- 널리 백성을 구제함. 보국안민 ■■■■■정신, 통일 초석될 수 있기를"
-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우는 ■■■(處所)
- 영구나 무덤, 기념비 등의 앞에서 추모나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일.
- 조선초까지 제주도 지역을 지칭하는 행정구역 명칭 欺羅
-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재편하면서 내세운 사상, 사람이 곧 하늘
- 조선시대에 각 감영에서 관찰사가 정무를 처리하던 정청 건물
- 지방문묘 수호와 윤리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활동하는 학교의 책임자
- 선비들이 통상의 예복으로 입던 겉옷. 소매가 넓고 길며 길이도 길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웹진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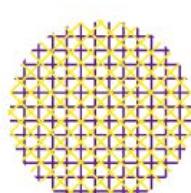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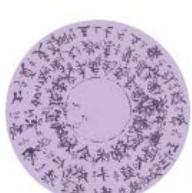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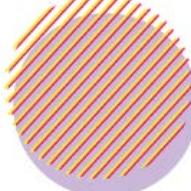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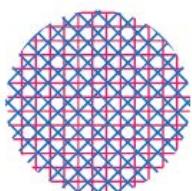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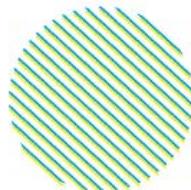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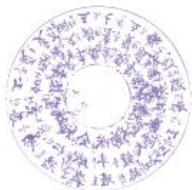
'녹두꽃'을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의 출판이 이번 2014년 봄호(15호)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오는 6월 30일(월)에 발간될 2014년 여름호(16호)부터는 웹진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웹진(Web Zine)이란 인터넷 상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종이매체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전자매체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적 요소의 도입, 독자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외보, 동호회보 등이 웹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웹진으로 발간됨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제작방식을 통해 독자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간행물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며,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방문자 분들이 손쉽게 소식지를 접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편에서 이메일로 송신수단이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독자 분들에게 보다 빠른 배포가 가능합니다.

웹진을 이메일로 수신하고자 하시는 독자 분들께서는 djiori@1894.or.kr으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 혁명 120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포스터 공모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포스터」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공모주제 및 응모자격

• 공모주제

-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 선양하고자 하는 내용
- 동학농민혁명의 발생배경, 동학농민군의 활동 모습 및 성과
- 동학농민혁명이 성공했다면 이후 달라진 모습 등

• 응모자격

-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있는 중 ·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전문가 포함)

• 작품규격

- 크기 : A2패널(420 X 594mm)
- 유형 : 수채화, 포스터물감, 컴퓨터그래픽 등

접수 및 시상내용

- 작품접수 : 2014. 4. 7월 ~ 5. 21수 18:00까지
- 작품심사 : 2014. 5. 26월
- 결과발표 : 2014. 5. 30금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구 분	작 품	부 상	비 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	상장 및 상금	중등 / 고등 / 일반 . 대학 (각각 1명)
우수상 (기념재단이사장)	9	상장 및 상금	중등 / 고등 / 일반 . 대학 (각각 3명)
장려상 (기념재단이사장)	30	상장 및 상금	중등 / 고등 / 일반 . 대학 (각각 10명)

* 시상식 일정은 입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궁금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관운영부(☎063-536-1894)로 문의 바랍니다.